



## 신명사문자(Tetragrammaton) 번역으로 본 칠십인역 사무엘-열왕기 본문의 형태\*

김정훈(부산장신대)

### 1. 들어가는 말

구약성경의 역사에서 신명사문자(神名四文字, Tetragrammaton), 곧 “יהוה”의 의미 이해와 그 음역은 풀기 어려운 문제로 유명하다.<sup>1</sup> 일찍부터 신명사문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4840).

- 1 신명사문자와 관련한 주된 연구 경향은 네 자음의 기원과 의미에 집중되어 있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물들을 몇몇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조. F. Adrom/M. Müller, “The Tetragrammaton in Egyptian Sources - Facts and Fiction”, In: J. van Oorschot/M. Witte (eds.), *The Origins of Yahwism* (Berlin/Boston: De Gruyter, 2017), 93-114; N. Gordon, “Blotting Out the Name”, *Textus* 29 (2020), 8-43; P. Vasileiadis, “Exodus 3:14. As an Explanation of the Tetragrammaton: What If the Septuagint Rendering Had No Platonic Nuances?”, *Biblishe Notizen* 183 (2019), 101-128. 이는 우리말 연구에서도 비슷하다. 참조. 구덕관, “하나님의 이름”, 『신학과세계』 18 (1989), 123-136; 박태범, “구약의 신명(神名) 계시(啓示)에 관한 기초신학적 연구”, 『가톨릭사상』 26 (2002), 103-132; 장영일, “‘야훼’(Yahweh) 이름의 기원과 의미”, 『장신논단』 12 (1996), 104-136; 주은평,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해를 근거로 본 출애굽기 3장 13-15절의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에 관한 해석”, 『구약논단』 18 (2012), 61-84; 홍국평, “창세기 신명 사

를 거룩히 여겨 직접 읽지 않고(참조. 출 20:7), 대체 읽기로 대신했던 전통 탓에 이 자음의 원래 읽기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여호와”로 음역했는데, 이는 잘 알려진 대로 신명사문자의 대체 읽기였던 “יהוה” (아도나이/내 주님)의 모음과 조합한 읽기에서 비롯했다. 곧 이 모음을 신명사문자에 넣어서 “YeHoWaH” (여호와)로 읽은 것이다. 그러니 이는 원래의 읽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른 한 편으로 우리말 성경 『새번역』(2002)이나 가톨릭교회의 『성경』(2005)은 대체 읽기의 전통을 그대로 살려서 고딕체의 “주님”으로 옮겼다. 이것은 유대주의의 전통적인 읽기를 존중한 번역인데, 칠십인역도 대개 이 전통을 따라 “Κύριος” (퀴리오스/주님)로 옮겼다. 다만 이 번역이 일반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필사본에서 주요한 개념이나 인물에 쓰이던 이른바 성명 축서법(聖名縮書法, scriptio nominis sacri)에 따라 첫 자음과 마지막 자음만 쓰고, 위에 줄을 긋는 전통이 있었다(보기. כַּדָּ, כַּוּ, כַּוָּ, כַּוֵּ 등).<sup>2</sup>

한편, 헬레니즘 시대 초기 유대주의의 몇몇 전통은 이와 다른 보기를 전해 주기도 한다.<sup>3</sup> 먼저, 현존하는 필사본 가운데 가장 초기의 것으로 기원전 1세기 칠십인역 필사본 단편인 Papyrus Fouad 266을 들 수 있다. 이 필사본에서는 신명사문자를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첫 필사자는 음역하지 않고 첫 부분에 윗점을 찍은 뒤 몇 칸을 비워 두었는데, 필사본의 수정자가 히브리어로 신명사문자를 채웠다.<sup>4</sup> 또한, 기원전 1세기 후반으

용의 기술적 분석: 화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1 (2015), 10-39 등.  
 2 이에 대해서는 참조. A. Paap, *Nomina Sacra in the Greek Papyri of the First Five Centuries* (Papyrologica Lugduno-Batava VIII; Leiden: Brill; 1959); B. M. Metzger, *Manuscripts of the Greek Bible: An Introduction to Greek Paleography*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36-37.  
 3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1-1; 서울: 바오로딸, 2009), 256-258을 참조하라.  
 4 이 필사본에 대한 설명은, D. Fraenkel,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170-178, 특히 177; 필사본의 사진 보기는 Z. Aly/L. Loenen,

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유대 광야의 나할 헤베르(Nahal Hever)에서 발견된 칠십인역 열두 소예언서 필사본(8HevXIgr)에서는 신명사문자를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써서 구분하였다.<sup>5</sup> 그런가 하면 쿨란 제4 동굴에서 발견된 기원전 1세기의 칠십인역 레위기 필사본 단편에서는 흥미롭게도 “IAW”(야호)라는 신명사문자의 음역이 발견된다.<sup>6</sup> 이것은 드문 보기로 기원전 1세기에 신명사문자의 음역 시도를 반영한다. 이런 음역의 전통은 헥사플라 전통에서 “IA”(야)와 “IABE”(야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sup>7</sup>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오늘날에는 신명사문자의 음역을 재구성하여 “야훼” 또는 “야웨” 등으로 음역하는 것이 보통이다.<sup>8</sup>

하지만, 본 연구는 칠십인역에서 신명사문자의 번역으로 대부분 받아들인 “Κύριος”(퀴리오스)에 주목한다. 필자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구약성경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sup>9</sup> 사무엘-열왕기의 칠십인역 필사본에서 신명사문자의 번역인 이 “Κύριος”(퀴리오스)는 정관사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나, 정관사와 더불어 쓰이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sup>10</sup> 본 연구에서는 정관사의 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발전시킨다. 그런데 정관사 없이 쓰인 경우는 이

---

*Three Rolls of the Early Septuagint: Genesis and Deuteronomy* (Bonn: Rudolf Habelt Verlag, 1980), 특히 39를 보라.

5 E. Tov/R. Kraft (eds.), *The Greek Minor Prophets Scroll from Nahal Hever (8HevXIgr)* (DJD VIII; Oxford: Clarendon Press, 1990), Pl. 19 등.

6 P. Skehan/E. Ulrich/J. Sanderson, *Qumran Cave 4. Paleo-Hebrew and Greek Biblical Manuscripts* (DJD IX; Oxford: Clarendon Press, 1992), Pl. 40.

7 E. Hatch/H. A. Redpath (eds.),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Books, <sup>2</sup>1998; 이하 HR), App. 73.

8 우리말 음역의 차이는 신명사문자(יהוה)에 들어 있는 히브리어 자음 “י”(야브)의 발음과 연관된다. 이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야웨”가 되며, 유럽식으로 발음하여 가장 비슷하게 우리말로 재현하면 “야훼”가 된다.

9 아래의 각주 38)를 보라.

10 참조, Kim, Jong-Hoon,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357-362.

번역을 고유명사로 보았을 것이라고, 정관사가 들어간 경우는 남성 명사인 이 번역어를 그리스어 문법에 맞추었다고 직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칠십인역 사무엘-열왕기는 본문 역사와 그 재구성이 복잡해서, 용례의 분류를 통한 직관적인 분석만으로 번역자의 정체와 번역 기법을 단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칠십인역 사무엘-열왕기의 본문 역사 재구성의 문제를 먼저 훑어본 뒤, 신명사문자에 정관사를 쓰는 필사본들이 보여주는 본문 형태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석해서 칠십인역 본문의 여러 형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 2. 사무엘-열왕기 칠십인역 본문 역사 재구성의 문제

본 연구의 대상인 사무엘-열왕기는 본문의 역사와 그 형태가 복잡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sup>11</sup> 특히 사무엘서의 히브리어 본문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sup>12</sup> 칠십인역은 본문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런데 사무엘-열왕기는 칠십인역 본문의 역사도 쉽사리 재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문제의 핵심은 가장 신뢰할 만한 기원후 4세기 칠십인역 필사본인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Cod. B)<sup>13</sup>의 사무엘-열왕기 본문에서 뚜렷이 구분되는

11 사무엘 열왕기의 본문 역사와 형태를 둘러싼 연구사 개요는 참조. Kim, *Textformen*, 4-32; 김정훈, “칠십인역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 『Canon&Culture』 5 (2009), 181-200 등.

12 가령, 맥카터(McCarter)는 “사무엘서의 마소라 본문은 결함이 있는 본문(defective text)이다. 그것은 중 자탈락(haplography)이 심한데, 이 말은 자음이 연이어 나올 때 생겨난 필사자의 누락을 겪었다. 대부분은 낱말이나 구절의 끝에서 그렇다(homoioteleuton)”라고 평가한다. 참조. P. K. McCarter, *1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B 9: Garden City/NY: Doubleday & Company, 1984), 8f.

13 이 필사본과 이하 언급되는 대문자 필사본에 대해서는,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저, 『구약성서 본문:

두 가지 형태의 본문이 번갈아 나온다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바티칸 사본보다 오래된 기원후 3세기의 시나이 사본(Codex Sinaiticus; Cod. S)에는 사무엘-열왕기 본문이 남아 있지 않으며, 기원후 5세기의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nus; Cod. A)은 사무엘-열왕기에서 헥사플라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4</sup> 그러므로 본문의 형태와 역사를 재구성하려면 여전히 바티칸 사본에 있는 본문의 형태를 분석하여 본문비평을 해야 한다.

사무엘-열왕기서의 칠십인역 본문에 본격적으로 본문비평적 관심을 두도록 촉발한 것은 무엇보다 19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의 체리아니(Antonio M. Ceriani), 독일의 벨하우젠(J. Wellhausen), 영국의 필드(F. Field)가 거의 동시에 기원후 9-12세기의 칠십인역 소문자 필사본 몇몇(boc<sub>2e</sub>)<sup>15</sup>에서 사무엘-열왕기 일부분에 바티칸 사본의 본문과는 다르지만, 교부들의 성경 인용과 일치하는 형태의 본문이 있음을 발견하면서부터다.<sup>16</sup> 이들은 안디옥 교부인 크리스소스톰과 테오도렛, 그리고 불가타를 번역한 히에로니무스의 언급 등을 바탕으로 이 본문을 안디옥 교부 순교자 루키안의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독일 괴팅겐의 라가르드(P. A. de Lagarde)와 그의 제자 랄프스(A. Rahlfs)는 이 본문 형태에서 순교자 루키안 이전의 원-루키안(ur-lukianisch) 본문과 루키안의 개정 본문을 구분한다.<sup>17</sup>

한편, 앞서 언급한 바티칸 사본의 두 가지 본문 형태의 범위를 구체적으

---

역사와 본문비평. 에른스트 뷔르트바인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입문서에 대한 새로운 개정』(김정훈 외 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147-151의 설명을 참조하라.

14 이에 대해서는, Bo Johnson, *Die hexaplarische Rezension des 1. Samuelbuches der Septuaginta* (Lund: GWK Gleerup, 1963), 89-146을 보라.

15 칠십인역 소문자 필사본을 표기하는 데 케임브리지 전통의 문자 표기와 괴팅겐 전통의 숫자 표기에 대한 설명은,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213-216을 참조하라. 여기서는 편의상 문자 표기법에 따른다.

16 참조, A. Rahlfs, *Septuaginta-Studien I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11/1968), 80.

17 A. Rahlfs, *Septuaginta-Studien III*, 81f, 176-186, 259-283 등.

로 분석한 것은 영국의 학자 테커레이(H. St. J. Thackeray)다. 그는 바티칸 사본이 전하는 사무엘-열왕기의 구분되는 칠십인역 본문 형태의 범위를 구분하였다( $\alpha$  - 삼상;  $\beta\beta$  - 삼하 1:1-11:1;  $\beta\gamma$  - 삼하 11:2-왕상 2:11;  $\gamma\gamma$  - 왕상 2:12-21:43;  $\gamma\delta$  - 왕상 22:1-왕하 25:30).<sup>18</sup> 테커레이는 원래 사무엘-열왕기는 왕국의 긍정적인 부분( $\alpha, \beta\beta, \gamma\gamma$ )만 번역되었는데, 기원후 2세기 무렵에 “아시아 학파의 특정 매너리즘”(certain mannerism of the Asiatic school)에 따라 왕국의 부정적인 부분( $\beta\gamma, \gamma\delta$ )이 기원후 2세기 무렵에 직역으로 번역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의 몇몇 특징을 제시하였다.<sup>19</sup>

하지만 테커레이의 이 견해는 쿠파란 성경 필사본이 발견되면서 잘못임이 드러났다. 바르텔레미(D. Barthélemy)는 1952년에 유대 광야의 나할 헤베르(Nahal Hever)에서 발견된 칠십인역 열두 소예언서 필사본(8HevXIIgr)의 그리스어 본문 형태를 분석한 뒤, 이 형태와 사무엘-열왕기의  $\beta\gamma$ -,  $\gamma\delta$ -부분의 본문 형태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이 본문 형태의 특징을 더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sup>20</sup> 그 특징 가운데 히브리어 “קַיִ” (קַיִ, 또한)을 기계적으로 “καὶ γέ” (카이게)로 옮기는 현상을 들어 이 본문 형태를 “카이게-그룹”(groupe καί γε)으로 일컬었다. 여기서 “카이게-개정본”(Kaige-Recension: KR)이라는 용어로 발전되었다. 이로써 사무엘-열왕기의  $\beta\gamma$ -,  $\gamma\delta$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극단적인 직역의 본문 형태는 기원후 2세기가 아니라, 적어도 기원전 1세기에

18 참조. H. St. J. Thackeray,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1), 16-28.

19 Thackeray,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114-115의 도표 참조.

20 D. Barthélemy, *Les Devanciers d'Aquila* (VTS 10; Leiden: Brill, 1963), 48-80. ① “각자”의 의미로 쓰인 אִישׁ의 번역으로 의미에 맞는 ἕκαστος 대신 ἀνὴρ, ② מַעַל의 번역으로 ἀπό이나 ἀπάνω 대신 ἐπάνωθεν (ἀπάνωθεν), ③ יַצַּב - יַצַּב를 무리하게 어근에 따라 στηλώω로 번역함, ④ 뿔나팔과 금관악기의 구분 - שׁוֹפָר는 κρατήνη로 번역하고, הַצִּבְרֹת是 σάλπιγγες로 번역함, ⑤ 역사적 현재 시제가 쓰이지 않음, ⑥ 문맥의 시제와 상관없이 וְאֵין을 καὶ ἔστι로 번역함, ⑦ 일인칭 대명사의 짧은 형태 אֲנִי와 구분되는 긴 형태 אֲנִי는 정동사 앞에서까지도 무조건 ἐγώ εἰμι로 번역함, ⑧ אֲרַקְרַק의 번역으로서 εἰς ἀπαντήν. 또한, 이 본문 형태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136-141쪽을 보라.

는 널리 퍼져 있었던 개정본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더욱이 이런 지역의 형태는 이 무렵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헬레니즘 시대 초기 유대주의 성경 해석의 원칙, 곧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극단적으로 중요시했던 원칙이 번역에도 적용되어, 번역어에서 의미를 다소 상실하더라도 히브리어 원문의 요소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개정의 경향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sup>21</sup>

또한, 쿰란 성경 필사본의 발견은 사무엘-열왕기에서 이른바 "(원)-루키안 본문"의 연구에도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다. 곧 쿰란 제4 동굴에서 발견되어 1953년부터 본문이 편집 출간되면서 연구가 활발해진 사무엘 필사본 단편(특히 4Q<sub>Sama</sub>=4Q51)은 여러 곳에서 이른바 (원)-루키안의 본문 형태와 배타적으로 일치하면서,<sup>22</sup> 이 본문 형태의 고대성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순교자 루키안과 이 본문 형태를 구분하여 "안디옥 본문"(Antiochene Text)으로 일컫게 되었다. 그래서 칠십인역 사무엘-열왕기에서 카이제-개정본만 전해지는 부분에서는 안디옥 본문이 원-칠십인역(Ur-LXX)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도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본문 형태를 대변하는 중세 필사본들(boc<sub>2</sub>e<sub>2</sub>=19 108 82 93 127)<sup>23</sup>을 중심으로 안디옥 본문의 비평편집본(critical edition)<sup>24</sup>이 출간되면서

21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128-141을 참조하라. 또한, 헬레니즘 시대 초기 유대주의 성경해석 원칙에 대해서는, 귄터 스템베르거, 『미드라쉬 입문』(이수민 옮김). (유대·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2; 서울: 바오로딸, 2008)을 보라.

22 참조, F. M. Cross, "A new Qumran Biblical Fragment Related to the Original Hebrew Underlying the Septuagint", BASOR 132(1953), 15-26.

23 본문 편집에 쓰인 필사본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기호 b는 서로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 b'와 b를 통칭한다. b'(19): Chis. Gr. 30 (olim R. VI. 38) (11-12세기); b(108): Vat. gr. 330 (13-14세기); o(82): Coislin 3 (12세기); c<sub>2</sub>(127): Gr. 31 (10세기); e<sub>2</sub>(93): Royal 1 D. II (13세기). 안디옥 본문의 편집본에서는 괴팅겐 전통의 숫자 표기법을 썼다.

24 N. Fernández Marcos/ J. R. Busto Saiz eds.,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II, 1-2 Reyes III, 1-2 Crónicas, (TECC 50, 53, 60; Madrid: CSIC, 1989, 1992, 1996).

연구가 본격화되기는 했지만, 사무엘-열왕기 본문 역사에 대한 논의는 완결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괴팅겐에서 편집하는 칠십인역 대비평편집본은 여전히 완성되어 출간되지 못하고 있는데,<sup>25</sup> 이는 편집자가 본문비평을 통해서 가장 오래된 본문 형태를 결정하는 괴팅겐의 비평본(critical edition) 편집 원칙에서 가장 오래된 본문을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전히 브룩-맥린(Brooke-McLean)의 고문서본(diplomatic edition) 대비평편집본이 유효한 상태다.<sup>26</sup>

어쨌거나 “안디옥 본문”이나 “카이게-개정본”과 같은 본문 형태는 칠십인역 사무엘-열왕기의 본문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본문 형태다. 그러므로 본문 형태를 특징짓는 현상들을 되도록 많이 확인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신명사문자와 정관사의 사용을 그 한 보기로 삼는다. 왜냐하면, 아직 이 현상을 사무엘-열왕기서의 구분되는 본문 형태 관점에서는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5 사무엘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핀란드 헬싱키 출신의 아넬리 에멜레우스(Anneli Aejmelaeus)가 편집을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완성하지 못하였고, 사무엘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때 스위스 프리부르(Fribourg) 출신의 필립 위고(Philippe Hugo)가 편집하다 끝내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괴팅겐 칠십인역 연구소(Septuaginta Unternehmen)는 2015년 107주년을 끝으로 문을 닫고, 지금은 괴팅겐 대학의 “칠십인역 편집본과 연구를 위한 연구위원회”(Forschungskommission zur Edition und Erforschung der Septuaginta)로 축소되어 편집본의 출간을 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26 A. Brooke/N. McLean (eds.),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Vol. II. The Later Historical Books, 1. I and II Samuel, 2. I and II K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7, 1930).

### 3. 신명사문자 번역으로 본 사무엘-열왕기 본문의 형태

#### 1) 칠십인역의 신명사문자 번역

신명사문자는 칠십인역에서 앞서 언급한 대로 대개 “Κύριος”(퀴리오스/주님)로 옮긴다. 하지만 이 번역어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기는 하다.<sup>27</sup> 먼저 “δεσπότης”(테스포테스/군주)로 옮긴 경우가 있는데(잠 29:25; 사 1:24), 이 번역어가 주로 “יְהוָה”(아돈/주인), 또는 “אֲדֹנָי”(아도나이/내 주인)의 번역어로 쓰이는 점을 고려한다면<sup>28</sup> 읽기의 전통에서 비롯한 이형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יְהוָה יִרְאֵת” (이르아트 야훼/야훼 경외)를 “εὐσέβεια”(에우세베이아/경외)로만 옮겼는데, 이는 본문 누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14절에서는 “יְהוָה וְיִרְאֵת” (바아도나이 야훼/그리고 주님, 야훼)를 “κύριος παντοκράτωρ”(퀴리오스 판토크라토르/만군의 주)로 옮겼는데, 이 번역어가 스가랴에서 “יְהוָה צְבָאוֹת” (야훼 츠바오트/만군의 야훼)의 번역어로 주로 쓰이는 점을 고려할 때,<sup>29</sup> 그 번역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형으로는 신명사문자를 “θεός”(테오스/하나님)으로 옮긴 경우다.<sup>30</sup> 주지하듯, 이 낱말은 “אֱלֹהִים”(엘로힘/하나님)의 번역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본문 전통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무엘-열왕기에서도 이런 용례는 15번 찾아볼 수 있다.<sup>31</sup>

27 HR, App. 4, 268-269.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경우는 “ἄγγελος κυρίου”(앙겔로스 퀴리우/주님의 천사), “κύριος ὁ θεός”(퀴리오스 호 테오스/주 하나님), “ὁ λόγος κυρίου”(호 로고스 퀴리우/주님의 말씀), “ὁ ὄνομα κυρίου”(호 오노마 퀴리우/주님의 이름) 등으로 신명사문자를 전제하여 번역 기법의 문제로 여길 수 있다.

28 참조. HR, 292c

29 참조. HR, 1054a

30 참조. HR, 630a-648a의 (7)번 용례들.

31 삼상 2:1, 24; 3:7; 4:4(A); 5:3; 14:3(B); 16:7, 8; 19:9(B rell); 20:13(B rell); 26:19; 삼하 12:20; 왕상 5:7(21);

마소라 본문 사무엘-열왕기에서 신명사문자는 모두 1007번 등장하는데(삼상: 320; 삼하 153; 왕상: 157; 왕하: 277),<sup>32</sup> 위에서 언급한 “θεός”(테오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Κύριος”(퀴리오스)가 번역어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분석 대상은 “Κύριος”(퀴리오스)가 쓰인 번역어의 경우다.

## 2) 사무엘-열왕기 신명사문자의 번역어 Κύριος와 정관사의 사용

정관사 사용의 관점에서 사무엘-열왕기 신명사문자의 번역을 관찰하면, 대부분 정관사 없이 “Κύριος”(퀴리오스)로만 옮겼다. 이는 칠십인역에서는 신명사문자를 고유명사로 여겼음을 말해준다. 데브룬너(A. Debrunner)에 따르면, 정관사가 없는 것은 직역하는 번역자에게서 전형적이며, 다만 전치사 ἵ(르)와 목적격 표지(nota accusativi) ἑ를 대신해 쓰이는 경우는 예외다.<sup>33</sup> 치글러(J. Ziegler)는 예레미야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서는 결국 데브룬너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sup>34</sup> 사무엘상에서 같은 현상을 분석한 브록(Brock)은 “대체로 사무엘상에서 κύριος와 정관사의 쓰임새는 치글러가 예레미야서에서, 데브룬너가 욥기와 마카비 2서에서 관찰한 것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sup>35</sup> 가장 최근의 광범위한 연구로는 무라오

20(21):10(A B).

32 참조. E. Jenni, “יהוה Jhwh Jahwe”, THAT I, 703.

33 A. Debrunner, “Zur Übersetzungstechnik der Septuaginta: der Gebrauch des Artikels bei Κύριος”, BZAW 41 (1925), 69-78. 그는 “신명으로서 κύριος는 좋은 그리스어를 구사하려는 번역자들에게서만 쓰인다... 반면에 직역을 하려는 번역자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이 유효했다. 곧 히브리어 신명의 정관사 없음은 그대로 재현되었지만, 번역할 수 없는 히브리어의 여격, 대격 지배 전치사는 그리스어의 정관사로 대체되었다”(77)라고 말한다.

34 J. Ziegler, *Beiträge zur Ieremias-Septuaginta* (MSU V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8), 133-136; 그는 특히 “신명 ku,rioj는 정관사 없이 쓰인다... 대체로 정관사는 이차적인 추가 본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35 S. P. Brock, *The Recension of the Septuaginta Version of 1 Samuel* (Torino: Silvio Zamorani Editore, 1996), 237.

카(T. Muraoka)의 분석을 들 수 있다.<sup>36</sup> 그는 칠십인역 전체에서 신명사문자가 정관사 없이 쓰인 용례와 정관사와 함께 쓰인 용례를 찾아 분석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그가 한 분석에 따르면 전체 7495번의 용례 가운데 83%에 이르는 6223번에서 정관사 없이 쓰였고, 1272번의 용례에서 정관사와 함께 쓰였다. 무라오카는 특히 주격, 소유격, 여격, 대격으로 구분해서 주격에서는 대부분 정관사 없이 번역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격과 대격에서는 상대적으로 정관사와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시편에서는 정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다른 책에서보다 많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의 포괄적인 통계는 개별 본문의 본문 역사와 그 형태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대로 사무엘-열왕기 칠십인역 본문 형태는 한 마디로 특징짓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카이게-개정본”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살펴보되, 특히 본문 역사에서 많이 논의되는  $\beta\gamma$ -부분(삼하 11:1-왕상 2:11)의 용례들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논의를 확장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자들이 형태론의 관점에서 논의했듯, 신명사문자의 번역으로  $\kappa\upsilon\rho\iota\omicron\varsigma$ (퀴리오스)의 격변화를 기준으로 용례들을 분석한다. 여기서 카이게 개정본(KR)은 바티칸 사본의 본문 중심으로 고문서본으로 편집한 브룩-맥린의 케임브리지 대비평편집본(Br.-M.)을 사용하고, 비교 본문으로는 스페인의 페르난데즈-마르코스가 편집한 안디옥 본문(Ant)을 사용한다.

#### (1) 주격( $\kappa\upsilon\rho\iota\omicron\varsigma$ )

신명사문자가 주어로 쓰인 용례에서 카이게 개정본은 엄격하게 정관사 없이 쓰였다. 그리고 이 경우 안디옥 본문은 대체로 카이게 개정본과 일치하

36 T. Muraoka, *A Syntax of Septuagint Greek* (Leuven/Paris/Bristol: Peeters, 2016), 17-20.

여 정관사 없이 쓰인다.<sup>37</sup> 하지만 안디옥 본문을 전하는 중세 필사본들을 중심으로 정관사와 함께 쓰인 몇몇 용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sup>38</sup> 이 가운데 사무엘하 10장 12절을 보기로 들어 보자. 이 구절에서 신명사문자가 나오는 문장의 히브리어 본문은 “וַיִּבְרַח הַטֹּב הַטֵּשֶׁה יְהוָה יַעֲשֶׂה” (바아도나이 아야세 하토브 브에 나브/그리고 야훼가 그분 눈에 좋은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이다. 바티칸 사본(Cod. B)을 비롯하여 카이게-개정본 본문을 전하는 필사본들은 여기서 “καὶ κύριος ποιήσει τὸ ἀγαθὸν ἐν ὀφθαλμοῖς αὐτοῦ” (카이 퀴리오스 포이에세이 토 아카톤 엔 오프탈모이스 아우투)로 옮겨서 신명사문자의 번역어인 “κύριος” (퀴리오스) 앞에 정관사를 쓰지 않는다. 반면에 안디옥 본문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καὶ ὁ κύριος”로 신명사문자 번역어 앞에 정관사를 쓴다. 하지만 안디옥 본문의 필사본 안에서도 모든 경우에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령,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는 4개의 필사본(bc<sub>2</sub>e<sub>2</sub>)은 카이게-개정본과 달리 신명사문자의 번역어를 정관사와 함께 쓰지만, 1개의 필사본(o)은 카이게-개정본처럼 정관사 없이 쓰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안디옥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느슨한 전통을 가지

37 삼하 12:1, 5, 11, 13, 15; 14:11; 15:8, 21; 16:8, 11, 18; 17:14; 18:19, 28; 21:1; 22:19, 21, 25, 47; 23:10, 12, 17; 24:3, 12, 16, 23, 25; 왕상 1:29 등.

38 βγ 부분에서 이런 용례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참조, Kim, *Textformen*, 357-358). 아래 표에서 앞서 언급되지 않은 필사본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269-284를 보라.

	κύριος	ὁ κύριος	기타
삼하 10:12	rell	boc <sub>2</sub> e <sub>2</sub>	
12:22	rell	bc <sub>2</sub> e <sub>2</sub> uv	
14:17	rell	oca <sub>2</sub>	
16:10	rell	(246)	
22:1	rell	oc <sub>2</sub> e <sub>2</sub>	
22:14	rell	boafglya <sub>2</sub>	
22:29	Ba <sub>2</sub> ; +μου Ahx; +ὁ θεός b	MNgijnvyz <sup>m</sup> b2	ὁ κύριος μου z <sup>m</sup> rell
24:15	rell	f	+ὁ θεός e
24:19	rell		κυρίῳ e <sub>2</sub>
왕상 1:37	rell	boc <sub>2</sub> e <sub>2</sub>	

고 있다.

신명사문자의 번역과 관련에서 브록(Brock)이 “적어도 주격에서 칠십인역 사무엘상은 κύριος를 고유명사로 취급한다. 그래서 절대로 정관사를 취하지 않는다. 필사본들에서 더러 정관사가 있는 경우가 이형으로 나타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루키안 본문에서 그렇다”<sup>39</sup>라고 말한 것은 흥미롭다. 그는 사무엘상의 범위에서 안디옥 본문의 본문 형태에 속한 필사본들이 더러 정관사를 쓰는 현상을 발견했지만, 이것을 이차적인 수정으로 본 셈이다. 하지만 왜 그런 수정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브록의 말대로 일반적으로는 고유명사에는 정관사를 쓰지 않는다.<sup>40</sup> 하지만 그리스어에서도 신명을 강조할 때는 “ἡ Ἀθηναῖ ἡ Νίκη” (헤 아테나 헤 니케/아테나, 승리의 여신)처럼 정관사를 쓸 수 있다.<sup>41</sup> 물론 무라오카는 이런 그리스어의 용법이 칠십인역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지만,<sup>42</sup> 신명에서 강조의 용법으로 쓰던 정관사가 칠십인역 번역자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또한, 신약성경에서는 신명사문자를 전제하는 문맥에서 쓰인 “κύριος”(퀴리오스)는 정관사를 쓰는 것이 보통이다.<sup>43</sup> 그러니 신명사문자에 정관사를 쓰는 것이 용례가 적다고 해서 후대의 수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카이게-개정본에서 극단적으로 지켜지는 것처럼 정관사가 없는 번역이 히브리어 본문의 요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히브리어의 모든 요소를 번역에 반영하려던 헬레니즘 시대 초기 유대주의의 본문 이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

39 Brock, *The Recension*, 234.

40 R. Kühner/B. Gerth, *Ausführliche Grammatik der Griechischen Sprache. II-1. Satzlehre* (Hannover: Verlag Hahnische Buchhandlung, 3<sup>1898</sup>; 이하 KG), 598: § 462, a).

41 참조. KG, 600-601.

42 Muraoka, *Syntax*, 18.

43 Blass/Debrunner/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sup>2001</sup>), 204: § 254, 1.

졌다.

## (2) 소유격(kuríou)

신명사문자가 소유격(히브리어에서는 절대형)으로 쓰인 경우도 주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전반적으로 정관사 없이 쓰인다.<sup>44</sup> 소유격에서도 카이게 개정본이 엄격히 정관사 없이 쓰는 데서 안디옥 본문이 정관사와 함께 쓰인 보기(τοῦ κυρίου)를 찾아볼 수 있다(보기, 삼하 21:9; 22:16, 32; 24:14). 가령, 사무엘하 21장 9절에서 히브리어 본문은 “הוּאֵה לְפָנַי יְהוָה” (리프네 아도나이/야훼 앞에)이다. 이것을 바티칸 사본(Cod. B)에 전승된 카이게-개정본 본문에서는 “ἐναντι κυρίου” (에난티 퀴리우)<sup>45</sup>로 옮겨서 정관사 없이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재현했다. 반면에, 안디옥 본문(boce<sub>2</sub>)은 “ἐναντι τοῦ κυρίου”로 정관사와 함께 번역한다. 소유격의 용례들에서도 주격과 마찬가지로 안디옥 본문은 비교적 느슨한 원칙을 보여주지만, 카이게-개정본은 대체로 정관사 없이 번역하려는 노력을 내보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모든 칠십인역 필사본은 히브리어 본문 “הוּאֵה אֶת־פְּנֵי יְהוָה” (에트-프네 야훼/여호와와의 앞에 [간구하였으므로])를 “τὸ πρόσωπον τοῦ κυρίου” (토 프로소폰 투 퀴리우)로 옮겼다. 칠십인역 사무엘-열왕기에서 같은 표현의 다른 용례는 예외 없이 정관사 없이 옮기는 점을 고려한다면(삼상 2:18; 왕상 13:6), 이는 이례적이다. 안디옥 본문뿐 아니라, 카이게 개정본의 본문 형태를 전하는 필사본에도 이 정관사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은 후대의 수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이며, 카이게 개정본이 후대에 정관사를 미처 빼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겠다.

44 삼하 11:27; 12:25; 15:25; 19:22; 20:19; 21:3; 22:31; 23:2; 24:11 등.

45 비교. evnanti,on kuri,ou AMNad-gj-np-wyzb.

### (3) 대격(κύριον)

신명사문자의 대격 번역은 주로 목적격 표지(nota accusativi) “אֶת” (에트)의 번역과 관련이 있다. 카이게 개정본은 이 경우에 히브리어 대본의 요소를 일대일로 옮기는 직역의 원칙에서 목적격 표지를 정관사로 옮긴다.<sup>46</sup> 다만 정관사의 격은 그리스어 동사의 조건에 따라 대격은 물론, 여격이나 소유격이 될 수도 있다. 이 원칙은 신명사문자에도 적용이 되어 번역어 앞에 정관사를 쓴다.

다만 여기에도 몇몇 예외가 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는 모든 필사본이 “בְּהִכָּרַת יְהוָה” (브하크리트 야훼/야훼가 끊으실 때)를 “ἐν τῷ ἐξαιρέειν κύριον” (엔 토 엑스하이레인 퀴리온)으로 옮겼다. 이 경우는 목적격 표지가 없고 그리스어 번역문에서 전치사 구와 함께 aci(accusativus cum infinitivo) 구문을 이루어 부정사의 주어 구실을 하므로 정관사가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4절과 7절에서는 안디옥 본문은 정관사와 함께 쓰인 데 반해, 카이게 개정본은 정관사 없이 쓰였다. 두 경우 모두 “אֶקְרָא יְהוָה” (에크라 야훼/내가 야훼께 외칠 것입니다)의 번역으로 카이게 개정본은 신명사문자가 목적어로 쓰였지만, 목적격 표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4) 전치사와 함께 쓰인 신명사문자

전치사와 함께 쓰인 신명사문자의 번역 양상은 다소 복잡하다. 여기서는 비분리전치사(praepositiones praefixae)와 함께 쓰인 표현, 특히 “לַיהוָה” (라이아도나이)와 “בַּיהוָה” (바이아도나이)의 번역을 살펴본다.<sup>47</sup>

46 이에 대해서는 Kim, *Textformen*, 98을 참조하라.

47 “כַּיהוָה” (카아도나이)와 “בַּיהוָה” (바이아도나이)의 형태는 사무엘-열왕기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다른 전치사들과 쓰인 형태도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① ליהוה

사무엘-열왕기에서 이 형태는 63번 쓰이는데, 주로 “τῶ κυρίῳ”(토 쿨리오)로 번역된다. 다음의 몇몇 다른 경우만 눈에 띈다.

소유격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 “לְ” (르)<sup>48</sup>는 대부분 “τοῦ”(투)로 대체된다. 다음의 보기에서 안디옥 본문은 1번 여격을 쓰고 1번은 정관사가 빠져 있다. 나머지 이형들은 후대의 수정이거나 비의도적 이형일 것이다.<sup>49</sup>

	MT	τοῦ	기타
왕상 2:27	כהן ליהוה	rell	τῶ boc <sub>2</sub> e <sub>2</sub>
18:22	נביא ליהוה	rell	om τοῦ boc <sub>2</sub> e <sub>2</sub>
22:7	נביא ליהוה	rell	om τοῦ e <sub>2</sub> Nvxy
왕하 3:11	נביא ליהוה	rell	om τοῦ rv

이중 신명 “לְיְהוָה אֱלֹהֵינוּ”(라이도나이 엘로헤; 하나님 야훼께)에서 안디옥 본문은 때때로 더 익숙한 신명인 “κυρίῳ τῶ θεῷ”(쿨리오 토 테오)에 따라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sup>50</sup>

	MT	τῶ κυρίῳ θεῷ	κυρίῳ τῶ θεῷ
삼상 15:15	ליהוה אלהיך	rell	boc <sub>2</sub> e <sub>2</sub> Nacfhvb <sub>2</sub>
15:25	ליהוה		all mss.
15:30	ליהוה אלהיך	rell	boc <sub>2</sub> e <sub>2</sub> Ac-hmnsv-a <sub>2</sub>
왕하 17:7	ליהוה אלהיהם	rell	boc <sub>2</sub> e <sub>2</sub> r
23:21	ליהוה אלהיכם	rell	boc <sub>2</sub> e <sub>2</sub> dpvxy

그밖에 정관사가 빠져 있는 다음의 용례들은 (삼상 1:11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안디옥 본문이나 그 이전 본문의 느슨한 원칙에 영향을 받은 용례들일

48 참조, GK § 129.

49 참조. 이하 표에 있는 필사본들의 정보에 대해서는 위의 각주 38).

50 이 현상에 대해서는 Ziegler, *Beiträge zur Jeremias-Septuaginta*, 134와 견주어 보라.

것이다.

	τῷ κυρίῳ	κυρίῳ
삼상 1:11	rell	boc <sub>2</sub> e <sub>2</sub> Acgtxz
1:28 <sup>1</sup>	rell	g
1:28 <sup>2</sup>	rell	a <sub>2</sub>
7:9	rell	v
15:13	rell	ghjnb <sub>2</sub>
15:31	rell	fmsw
16:2	rell	Nav
왕하 5:17	rell	b'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안디옥 본문은 비교적 느슨한 원칙에 따라 신명사문자의 번역에 정관사를 사용한다는 점이며, 반면에 카이게-개정본은 매우 엄격하게 히브리어 본문의 요소를 반영해서 옮기려 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곧 전치사의 자리를 정관사로 재구성해서 일대일의 번역어를 제공하려 했다는 말이다. 추측하건대 이를 위해서 카이게-개정본은 안디옥 본문에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원-칠십인역(Ur-LXX)에서 가끔씩 빠져 있던 정관사를 기계적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 ② ביהוה

브록이 언급한 것처럼,<sup>51</sup> “ביהוה”(바아도나이)의 번역은 다양하다. “ἐν κυρίῳ”(엔 퀴리오, 주님 안에서)는 원-칠십인역(Ur-LXX)의 유일한 번역어가 아니라 선호하는 번역어였을 것이다. 카이게-개정본은 이 선호 번역어를 그대로 따랐다.<sup>52</sup> 반면에 안디옥 본문은 다음의 보기에서 보듯, 제각각 그리스어 문

51 Brock, *The Recensions*, 235.

52 참조. 삼상 2:1; 10:22; 24:22; 30:6; 삼하 2:1; 19:8; 왕상 1:17, 30; 왕하 17:14; 18:5, 6 등.

법의 요구에 따라 번역어와 정관사를 비교적 느슨하게 사용하였다.

삼하 19:8	ἐν κυρίῳ rell   κατὰ τοῦ κυρίου boc <sub>2</sub> e <sub>2</sub>
왕상 1:17	ἐν κυρίῳ AMN rell   ἐν τῷ κυρίῳ ἄ ἐν τῷ θεῷ Βα <sub>2</sub> ; κατὰ (τοῦ β) κυρίου boc <sub>2</sub> e <sub>2</sub>
왕상 1:30	ἐν κυρίῳ rell   κατὰ (τοῦ ο) κυρίου boc <sub>2</sub> e <sub>2</sub>
왕하 17:14	(-) B rell   + κυρίῳ boc <sub>2</sub> e <sub>2</sub> Agrxy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경향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원-칠십인역으로 여길 수 있는 “בִּיהוָה” (비아도나이)를 옮긴 다음의 보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상 22:10	διὰ τοῦ θεοῦ all mss.
23:2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all mss.
23:4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all mss.
28:6	διὰ κυρίου rell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bob <sub>2</sub> c <sub>2</sub> e <sub>2</sub> cix
28:10	ομ rell   ἐν κυρίῳ N; τὸν κύριον boc <sub>2</sub> e <sub>2</sub>
30:8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rell   ομ τοῦ γ
삼하 5:23	διὰ κυρίου rell   διὰ τοῦ κυρίου bcfx
왕상 2:23	κατὰ τοῦ κυρίου rell   om x
2:42	κατὰ τοῦ κυρίου all mss

그러므로 안디옥 본문이 신명사문사 번역에서 느슨한 원칙을 보여주는 것은 카이게-개정본의 엄격한 통일성보다 오랜 본문 전통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경향도 카이게-개정본의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번역 경향에 들어맞는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본격화되었던 유대주의 개정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 준다.

#### 4. 맺음말

우리는 위에서 신명사문자(Tetragrammaton, יהוה)의 주된 칠십인역 번역어인 “κύριος”(퀴리오스)와 정관사의 쓰임새를 사무엘-열왕기 본문을 보기로 분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관적 이해로는 직역 전통의 번역자는 신명사문자를 고유명사로 보아서 정관사를 쓰지 않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번역자는 정관사를 쓰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칠십인역 본문을 전하는 필사본들에 내재하는 서로 다른 본문의 형태들과 그 역사를 간과한다. 서로 다른 시간에 형성되어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번역 기법으로 번역문을 생산하였지만, 결국 필사본에 혼재하게 된 본문 형태들을 구분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사무엘-열왕기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사무엘-열왕기의 칠십인역 본문을 전하는 대부분의 필사본에는 극단적인 직역을 지향하는 유대주의 개정본인 이른바 카이게-개정본(Kaige-Recension)과 이런 부분에서 더 오래된 본문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이른바 안디옥 본문(Antiochene Text)이 혼재한다. 따라서 사무엘-열왕기에서 신명사문자와 정관사 사용의 관계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이 본문 형태 구분에 따른 현상의 양상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점에서 용례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신명사문자와 정관사 사용의 역사를 재구성하자면, 우선 원-칠십인역(Ur-LXX)은 신명사문자를 고유명사로 보아서 주격과 소유격에서는 번역어인 “κύριος”(퀴리오스)를 대개 정관사 없이 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명사문자가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는 고정된 원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칠십인역의 이런 번역 기법은 안디옥 본문에 대체로 수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주격과 소유격에서 좀 더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카이게-개정본은 아주 엄격한 규칙을 보여준다. 곧 이 본문 형태에 서는 신명사문자는 가능한 정관사 없이 쓰고, 그 원칙대로 번역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는 초기 헬레니즘 유대주의의 성서해석에 영향을 받아 히브리어 본문의 모든 요소를 기계적으로 번역문에서 재현하려 했던 카이게-개정본의 일반적인 직역의 원칙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신명사문자를 번역에 정관사 사용의 여부가 카이게-개정본의 번역 기법을 이해하는 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참고문헌

- 구덕관, “하나님의 이름”, 『신학과세계』 18 (1989), 123-136.
-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유대·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1; 서울: 바오로딸, 2009).
- 같은이, “칠십인경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 『Canon&Culture』 5 (2009), 181-200.
- 박태범, “구약의 신명(神名) 계시(啓示)에 관한 기초신학적 연구”, 『가톨릭사상』 26 (2002), 103-132.
- 장영일, “‘야훼’ (Yahweh) 이름의 기원과 의미”, 『장신논단』 12 (1996), 104-136.
- 주은평,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해를 근거로 본 출애굽기 3장 13-15절의 하나님의 이름 (아도나이)에 관한 해석”, 『구약논단』 18 (2012), 61-84.
- 홍국평, “창세기 신명 사용의 기술적 분석: 화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21 (2015), 10-39.
- 권터 스텐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이수민 옮김). (유대·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2; 서울: 바오로딸, 2008)
-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저,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에른스트 뷔르트바인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입문서에 대한 새로운 개정』 (김정훈 외 역), (서

울: 대한성서공회, 2020).

- Adrom, F./M. Müller, "The Tetragrammaton in Egyptian Sources - Facts and Fiction", In: J. van Oorschot/M. Witte (eds.), *The Origins of Yahwism* (Berlin/Boston: De Gruyter, 2017), 93-114.
- Aly, Z./L. Loenen, *Three Rolls of the Early Septuagint: Genesis and Deuteronomy* (Bonn: Rudolf Habelt Verlag, 1980)
- Barthélemy, D., *Les Devanciers d'Aquila* (VTS 10; Leiden: Brill, 1963).
- Blass/Debrunner/Rehkop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2001).
- Brock, S. P., *The Recension of the Septuaginta Version of 1 Samuel* (Torino: Silvio Zamorani Editore, 1996)
- Brooke, A./N. McLean (eds.),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ado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Vol. II. The Later Historical Books, 1. I and II Samuel, 2. I and II K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27, 1930).
- Cross, F. M., "A new Qumran Biblical Fragment Related to the Original Hebrew Underlying the Septuagint", *BASOR* 132(1953), 15-26.
- Debrunner, A., "Zur Übersetzungstechnik der Septuaginta: der Gebrauch des Artikels bei Κύριος", *ZAW* 41 (1925), 69-78.
- Fernández Marcos, N./ J. R. Busto Saiz eds.,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II, 1-2 Reyes III, 1-2 Crónicas* (TECC 50, 53, 60; Madrid: CSIC, 1989, 1992, 1996).
- Fraenkel, D.,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 Gordon, N., "Blotting Out the Name", *Textus* 29 (2020), 8-43.
- Hatch, E./H. A. Redpath (eds.), *A Concordance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Books, 21998).
- Johnson, Bo, *Die hexaplarische Rezension des 1. Samuelbuches der Septuaginta* (Lund:

- GWK Gleerup, 1963)
- Kim, Jong-Hoon,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 Kühner, R./B. Gerth, *Ausführliche Grammatik der Griechischen Sprache. II-1. Satzlehre* (Hannover: Verlag Hahnische Buchhandlung, 31898).
- McCarter, P. K., *1 Samu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B 9: Garden City/NY: Doubleday & Company, 1984).
- Metzger, B. M., *Manuscripts of the Greek Bible: An Introduction to Greek Paleography*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1991).
- Muraoka, T., *A Syntax of Septuagint Greek* (Leuven/Paris/Bristol: Peeters, 2016)
- Paap, A., *Nomina Sacra in the Greek Papyri of the First Five Centuries* (Papyrologica Lugduno-Batava VIII; Leiden: Brill; 1959).
- Rahlf's, A., *Septuaginta-Studien I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11/21968).
- Skehan, P./E. Ulrich/J. Sanderson, *Qumran Cave 4. Paleo-Hebrew and Greek Biblical Manuscripts* (DJD IX: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Thackeray, H. St. J., *The Septuagint and Jewish Worship*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1)
- Tov, E./R. Kraft (eds.), *The Greek Minor Prophets Scroll from Naḥal Ḥever (8ḤevXII<sup>gr</sup>)* (DJD VIII: Oxford: Clarendon Press, 1990)
- Vasileiadis, P., “Exodus 3:14. As an Explanation of the Tetragrammaton: What If the Septuagint Rendering Had No Platonic Nuances?”, *Biblische Notizen* 183 (2019), 101-128.
- Ziegler, J., *Beiträge zur Ieremias-Septuaginta* (MSU V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8)

검색어

신명사문자

칠십인역

번역기법

카이게-개정본

안디옥 본문

## **Eine Untersuchung zur Textformen von griechischen Sam-Kön anhand der Wiedergabe von יהוה mit κύριος ohne bzw. mit Artikel**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Der vorliegende Beitrag gibt auf die Wiedergabe von יהוה mit κύριος Acht. Vor allem diese Wiedergabe steht in der Septuaginta hauptsächlich ohne Artikel aber manchmal auch mit Artikel. Zu diesem Thema wird meistens betrachtet, dass sie bei den wörtlich übertragenden Übersetzern ohne Artikel wiedergegeben wird dagegen bei den relativ frei Übertragenden mit Artikel. Allerdings betrachtet solche Meinung die unterschiedlichen Textformen nicht, die in der den griechischen Text bietenden Handschrift vorhanden sind.

Da handelt es sich bei der vorliegende Beitrag vor allem um die griech-

ischen Sam-Kön, die eine komplexe Textgeschichte darstellen. Meiner Meinung nach ist die Textgeschichte auf Grund der Wiedergabe von יהוה mit κύριος rekonstruierbar, wie folgt. Die Ur-Septuaginta fasste den Tetragramm als Eigennamen, daher gab sie ihn hauptsächlich im Nominativ und im Genitiv mit κύριος ohne Artikel. Aber sie hatte vermutlich keine feste Regel bei den Fällen, wobei der Tetragramm mit Präpositionen verwendet wird. Diese Übersetzungstechnik wurde im allgemeinen beim antiochenischen Text übernommen. Und zwar wurde sie sogar im Nominativ und im Genitiv etwas lockerer.

Dagegen entwickelte die Kaige-Rezension eine ganz strenge Regel: Die wollte möglichst keinen Artikel vor dem Tetragramm setzen und Ihre Regel möglichst einheitlich bewahren.

## Keywords

Tetragrammaton

Septuagint

Kaige Recension

Antiochene Text

- 투고일: 2021년 3월 31일
- 심사일: 2021년 4월 27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5월 8일